

한중FTA 역수입 관련 중국 현지 제조업 기업 방문조사

- 하병기 부원장(부원장실)
- 백목윤 연구원(국제산업협력센터)

1. 출장 개요

- 출장기간: 2012년 9월 23일(일) ~ 9월 27일(목)
- 출장 지역: 중국 선양, 하얼빈
- 출장 목적
 - 2012년 수탁과제 “한중FTA가 대중 역수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”과 관련하여 현지에 진출해 있는 제조업 기업의 방문조사
 - 주선양총영사관이 주최하는 “동북3성 한중 기업인 교류”에 참석하여 현지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한중 산업협력 관련 주요 이슈 조사
- 출장자
 - 하병기 부원장
 - 백목윤 국제산업협력센터 연구원

○ 일정

일자	시간	내용	담당자
9/23(일)	오후	인천공항 -> 선양	
		주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 초청만찬	● 모상우 행정원
9/24(월)	오전	신생활 그룹	● 정무교 전무, 안봉락 회장
	오후	KOTRA 선양무역관	● 석정대 관장
		랴오닝성사회과학원 김철 소장면담	● 모상우 행정원
		금호석유화학 이해수 부장면담	● 모상우 행정원
9/25(화)	오전	선양 -> 하얼빈	
	오후	동북3성 한중 기업인 교류회 및 만찬	● 이정균연구원, 강형식 영사, 조백상 총영사
9/26(수)	오전	하얼빈시 기업구 방문	
	오후	하얼빈한국주간 행사 참석	
9/27(목)	오후	하얼빈 -> 인천	

※23일은 저녁 초청만찬, 26일 오후는 야외행사 참석, 27일은 귀국일정으로 면담기록이 없음.

2. 주요 면담자 및 면담 내용

< 9월 24일(월) >

□ 신생활 그룹(안봉락 회장)

○ 2012년 창립 18년째를 맞이한 한국계 중국 화장품 회사

- 화장품 외에, 기능성 속옷, 건강식품 브랜드도 산하에 보유하고 있음.

○ 중국 진출시 애로사항은?

- 초기에는 중국 노동자 특유의 직업의식으로 화장품 불량률이 높아 고전하였으나 봉급체계를 불량률 기준으로 개선하여 해결함.

- 특히 화장품 병의 경우 당시 중국내 해당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없어 한

국내 해당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로열티를 지불하여 해결하여 왔으나, 지금은 기술업체가 한국 사업을 접고 중국으로 건너와 본사의 병 생산공장을 직접 담당하게 됨.

- 외자기업인 이유로 법적인 문제로 중국 토종기업과 비교하여 역차별을 받는 어려움이 많았음.
- 최근에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 인식이 제고된데다 한류열풍 덕분에 판매에 큰 어려움은 없음.
- CSR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기업 이미지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임.
- 초기설립비용은 선양시 기준으로 1,100만 달러임(납입자본금).
- 토지같은 경우, 중국 정부로부터 임대받아 사용하며 토지 내의 건물만 소유하는 방식임.
- 중국 투자시 은행과는 거래하지 않았으며, 현재도 중국 내에서 증자하여 재투자도 신고하고 한국으로 송금하지는 않고 있음.
- 원부자재는 거의 중국 내수에서 조달함.
- 신생활-건설은행-우체국 택배의 3자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.
 - 건설은행 측으로 주문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하고 있으며, 최근 온라인 쇼핑몰도 활성화되고 있음.
- (향후 한중FTA가 체결되면 한국으로 수출할 의향이 있는지?)한국으로 수출할 생각은 없으며 중국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하면서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예정임.

□ KOTRA 선양무역관 방문(석정대 관장)

- 2011년에 개관하였으며 동북3성 지역에서는 다롄무역관 이후 두 번째의 무역관임.
- (랴오닝성 경제현황) 최근 3년간 글로벌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GDP와 대외무역지표 모두 두 자리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.
 - 2011년 랴오닝성 공업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4.3%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장비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8.9%의 성장률을 기록함.
 - 외국인직접투자액도 전년대비 17% 성장하였음.
- (한국-랴오닝성 협력관계)한-동북3성 교역액과 투자액 모두 랴오닝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, 최근 한국기업의 직접 투자도 급격하게 증가하였음.
 - 랴오닝성은 한-동북3성간 교역액의 85%, 투자액의 84%를 차지하고 있음.
 - 랴오닝성(선양시)에는 1000여개 한국계 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여기에는 STX(조선), 만도, 금호타이어(자동차), CJ(식품), SK네트웍스, 롯데(개발 및 인프라), 하나은행, 산업은행(금융)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음.
- (현지 한국기업 주요 이슈) 주로 노무/인사 문제와 경영여건 악화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.
 - 중소기업 중심으로 숙련노동자의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 대부분의 숙련공은 고소득 연안지역이나 중소기업종을 피하여 구직하고 있음.
 - 인건비 상승, 인민폐 절상, 중국기업의 성장,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경공업 위주의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태임.
 - 특히 중국 정부의 사회보장보험 관련 법규개정으로 노동자에 대한 5대 보험 강제가입 실시가 이행되면서 기업부담율이 증가함.
- 향후 對랴오닝성 주요 수출유망 품목으로는 미용기기, 자동차 엔진부품,

가공식품 등이 있음.

- 해당 품목들은 수요시장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중국 로컬기업보다 수입 제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편임.
- 가공식품의 경우 조선족 및 한국인 기반의 소비시장이 넓은 랴오닝성의 특징과 한류열풍, 식품안전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 등의 영향으로, 향후 수출유망품목으로 고려되고 있음.

□ 대사관(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김철 소장)

-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은 동북3성의 싱크탱크로, 지방경제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중 동북아연구소는 크게 한반도연구과 북한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현재 KIEP, 통일연구원, KDI 등 여러 연구소와 이미 MOU를 체결하고 있음.
- 동북아연구소는 주로 북한의 개혁개방 및 경제상황을 중심으로 거시경제 정책변화를 연구하여, 산업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는 산업연구원과는 연구 방향이 약간 다를 수 있음.
- 이에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산하 경제연구소와의 협력연구를 추천함.
 -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은 성 미시경제를 연구하는 성정연구소(省情研究所), 성 금융경제를 연구하는 금융연구소, 한반도 및 북한을 연구하는 동북아연구소, 그리고 랴오닝성 산업정책 및 경제를 연구하는 경제연구소가 있음.
- 바로 MOU를 추진하기 보다는 서로 공통의 연구주제가 있을 경우 협력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상호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그 후에 MOU를 논의해보는 것이 좋을 듯함.

□ 금호석유화학(이해수 부장)

- 한국의 금호석유화학이 선양 파트너사(국유기업)과 함께 합작 형식으로 2008년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0년 장스(張士)개발구에 공장을 설립함.
 - 동북3성의 전자재 시장을 목표로 진출(단열재가 주력생산 제품)
 - 투자비가 비교적 적고(한국과 중국이 8:2로 인민폐 2억 위안 투자)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있음.
- 토지는 중국 정부로부터 50년 임대권을 구매함.
- 최근 중국정부의 분배정책 강화로 5대 보험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.
- 원자재는 부피 기준으로 관세 및 운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중국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음.
 - 원자재 수입시 약 10% 이상의 비용차이가 발생함.
- 100%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하고 있음.
 - 최근 동북3성의 급격한 발전으로 전자재 수요가 급증
 - 중국내 로컬기업이 많으나 기술력과 품질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, 주로 미국이나 유럽 진출업체와 경쟁하고 있음.
- (한중FTA가 체결되면) 원부자재 수입 및 한국으로의 전자재 수출은?
 -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으로부터 원부자재 수입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부피기준으로 물류비용이 발생하는데다 동북3성이 내륙 쪽에 위치해 있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음.
 - 상하이에 독자기업으로 수출입판매 법인이 있는데 그 쪽이 해외수출입을

담당하고 있으며 이곳(선양)에 있는 합자기업은 내수중심임.

○ 중국 내수시장 진출시 초기 전략

- 합자인지 독자인지를 결정하고 합자라면 중국 파트너를 철저하게 선택해야 함.
- 특히 중국측의 안내만 듣지 말고 각종 혜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봐야 함(가격의 경우 공장가 vs. 소매가 여부 확인필요).
- 실무진의 중국 시장조사는 필수절차임.
- 한류열풍의 경우 B2B업계나 30대 이후의 실무진에게는 별로 영향이 없음.
- 현재 중국이 정권교체 기로에 서 있으며 복지 및 조화사회 건설에 대한 압력이 강해져 기존에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 중임(건설, 부동산 업계 쪽이 특히 강함).

< 9월 25일(화) >

□ 동북3성 한중기업인 교류회(헤이룽장성 부서기)

- 한국은 헤이룽장성의 3대 무역교역국이자 4대 투자국임.
 - 2011년 기준으로 한-헤이룽장성 교역액은 8.5억 달러로 전년대비 13.9% 증가하였으며 이 중 對한국 수출은 7.7억 달러로 전년대비 8.2% 증가함.
 - 2015년까지 對한국 교역액 3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음.
 - 2010년 누계 기준으로 헤이룽장성의 한국 투자액은 4.7백만 달러이며 약 130여 개의 한국업체가 진출해 있음.

- 헤이룽장성은 특히 자원량이 풍부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.
 - 석유생산량이 연 4000만 톤에 달하여 중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음.
 - 석탄과 비금속광물 매장량이 풍부하여 연간 생산량은 물론 관련 업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.
 - 그 외에도 용수와 토지자원이 풍부하여 공장입지 조건이 양호함.
- 헤이룽장성의 입지상 최근 러시아 및 연변 지역과 연계된 항공산업이 발달하고 있음.
 - “12.5” 기간 동안 6개 공항을 증설하여 특히 러시아와의 교류가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됨.

□ 동북3성 한중기업인 교류회(성도입덕지산(대경)유한공사)

- 2007년부터 100% 한국자본으로 성도입덕지산(대경)유한공사를 설립하여 한성국제특구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.
- 대경시는 중국 석유의 50%를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전지역이며 호주가 많아 백호라고 불려,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정부가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있음.
 - 원래 유전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었으나 시정부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삼영호 주변의 부동산을 개발하고 있음.
- 본 사는 그 중에서도 대경시 가장 중심지역의 부지를 따내, 비행장·골프장·5성급 호텔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화, 현대화를 목표로 건축개발을 진행 중에 있음.
 - 현재 고급주택가 중심으로 1기 건설이 완료되어 입주가 진행되어 2기 공사가 진행 중임. 2기는 2012년 말 완공예정이며 3,4기는 차후 착공 예정임.

< 9월 26일(수) >

□ 하얼빈시 첨단기술개발구 방문

- 하얼빈 첨단기술개발구는 1998년에 설립된 국가급 개발구로 2001년 하얼빈 경제기술개발구와 함께 1개의 관리기구 아래로 통합되었음.
- 개발구 북쪽부터 개발하여 중심부를 지나 남부로 확장하는 개발정책을 갖고 있으며, 현재 북쪽개발구의 “하얼빈 과학기술혁신타운” 개발계획 (“北躍”)이 진행 중임.
 - 총 130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과학기술혁신원과 과학기술산업원의 2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기, 중기, 장기의 3단계로 개발될 계획임.
- 신소재, 신에너지, 생물약, 광전기, 전자 및 IT산업 등 5대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며, 투자업체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을 마련하고 있음.
- 그 외에도 對러시아 입지조건, 37개에 달하는 이공계 대학교에서 배출되는 풍부한 인적자원, 송화강을 낀 풍부한 수자원 및 토지자원, 항공·철도·내륙수로 등이 발달한 물류기반 등을 갖추고 있음.

3. 방문 결과 종합

- 동북3성 재중 기업의 주요 이슈는 크게 인적자원 문제(노동력 품질 및 유지)와 중국 정부의 조화사회 건설에 따른 각종 경영여건 악화로 파악할 수 있음.
 - 경영여건 악화에는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도 포함됨.

- 동북3성 내수시장을 목표로 진출한 기업의 경우 한중FTA에 따른 관세 인하 및 한국으로의 수출이 큰 이슈로 부각되지 않고 있음.
 - 방문기업 대부분 원자재를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으며, 한국으로의 수출은 물류비용 혹은 브랜드 인식(예: 중국산 화장품) 등의 문제로 한중 FTA 체결 이후에도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지 않을 예정임.
 - 이 부분은 동북3성이라는 특수한 입지조건과 방문기업이 생산하는 품목별 특징이 있으므로, 지역 및 품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.
- 이밖에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과 협력연구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, 동북3성 지역의 한중 산업협력 현황 및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향후 주선양총영사관과의 연구협력 여지를 발견하였음.